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친환경 육계 사육과 일반 사육의 차이점



이창락 과장
(주)체리부로 사육본부

최근 '웰빙'은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잡은 가운데 소비자들의 건강한 삶,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에 많이 투여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시장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직불금 제도의 금년도 시행에 따

라 사육농가에서도 더욱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육계 계열화 업체에서도 무항생제 육계 사육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육 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6월 정비된 국내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구분된다. 유기축산물은 사료, 사육, 환경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본고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무항생제 사육과 일반 사육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표 1〉은 무항생제 육계 사육과 일반 사육을 간단히 정리, 비교해 본 것이다.

〈표 1〉 친환경(무항생제) 사육과 일반 사육의 비교

구분	친환경(무항생제) 사육	일반 사육
사료	AF사료	일반육계사료
약품사용	일체의 항생제 사용 배제(천연항생물질 이용)	일반항생제 투여가능
백신	ND, IBD 접종	ND, IBD 접종
출하 체중	1.55~1.75kg	1.20~1.85kg
입추시 관리	입추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미실시
중간 관리	체내 항생물질 잔류 검사 2회	항생제 잔류검사 필요시 실시
출하후 관리	출하후 항생제 잔류검사 실시 사육일지 기록 보관(의무적)	출하후 항생제 잔류 검사 실시 사육기록부 작성(자율)
기타	매월 입식, 출하내역 인증기관에 보고, 계사 내·외부 소독 강화	출하 10일 이내 항생제 투여 금지 체내 잔류항생물질 zero 원칙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친환경 육계 사육과 일반 사육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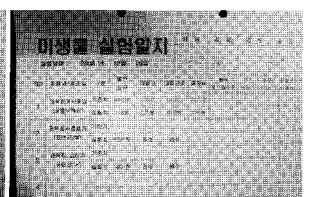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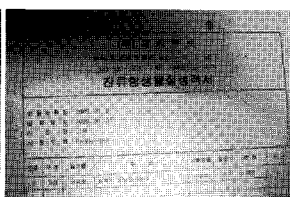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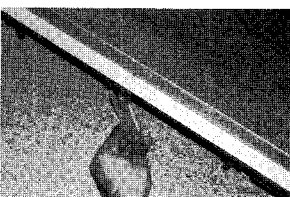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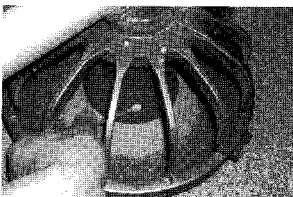
1. 모니터링

무항생제 사육 관리에 있어 핵심은 모니터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니터링은 입추, 사육 중, 출하 후 3단계 모니터링으로 나뉘며, 입추시에는 계사 내 낙하균 검사(대장균, 일반세균, 곰팡이)와 수질검사(급이기, 직수, 계사 내 물통), 표면검사(Swap)(급이기, 사료호퍼, 급수기)를 실행하며, 병아리가 입추되기 전 계사의 오염도를 측정해 이 결과를

토대로 무항생제 사육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사육 중에는 12일령 전후와 24일령 전후에 근육 내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도계 후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한다. 근육 내 항생제 검사는 간이 키트를 이용하여 현장(농장)에서 실시하거나 근육을 샘플링 후 본사 품질관리팀에 의뢰하여 항생제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데 주로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기	검사 항목	검사 기관
입추전 및 입추 당일	환경 컨설팅	무항생제 담당
	수질검사	본사 품질관리팀
	표면 세균검사	본사 품질관리팀
	낙하세균 검사	본사 품질관리팀
	혈중 항체 역가 검사(SP, MG, MS, TF, ND, IB, IBD)	외부 기관의뢰(반석가금연구소, 우리생명과학)
2주령	항생제 잔류검사(근육검사)	본사 품질 관리팀
출하 전	항생제 잔류검사(근육검사)	본사 품질 관리팀
출하 후 모니터링	항생제 잔류검사	본사 품질 관리팀
	도제품 검사	본사 품질 관리팀
	출하 성적서	



〈그림 1〉 급이기내 표면검사 〈그림 2〉 급수기내 수질검사 〈그림 3〉 항생제 잔류검사 결과서 〈그림 4〉 입추 모니터링 결과서

2. 사료 및 영양 관리

‘친환경축산표준모델’의 정의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따라서 무항생제 사육용 사료에는 항생제 첨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 또한 첨가할 수 없다.

사료에는 대체 첨가물질을 투여해 부족하기 쉬운 면역력 증강과 성장촉진을 보완한다.

대체 첨가물질은 천연항생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을 사용하며 생균제와 고급 영양제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실제로 사육 현장에서는 생균제를 이용한 육성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미늘 추출물, 참다래 추출물 등 항균력이 뛰어난 식물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균제(probiotic)로서 젖산균을 이용한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무항생제 사육용 대체재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축사 및 사육 조건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또한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고 축사의 바닥은 청결, 건조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일반사육 병행 여부

무항생제 사육과 일반 사육은 병행 사육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항생제 사육 농장의 가축과 일반사육 가축이 구분된 별도의 축사에서 사육되고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 제반 사양관리가 일반가축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정확히 기록관리 보관될 경우 병행 사육이 가능하다.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5. 사후 관리

사육과정 중의 철저한 항생제 사용 금지 원칙과 더불어 중요한 항목이 사후관리 과정이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친환경 육계 사육과 일반 사육의 차이점

다. 사후관리라 함은 사육과정 중에 발생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해당 인증센터에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다.

-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 (나)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 (다)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 (라)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용 위해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 (마)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은 점점 세밀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한 FTA 비준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식품 산업의 종사자,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장 큰 화두는 자체 경쟁력과 식품 안정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산업분야 또는 종사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조만간 존재 자체를 위협 받는 국면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친환경 닭고기는 소비문화의 큰 변화, 소비자의 인식, 욕구 변화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육계산업에서 점차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필자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는 올바른 친환경 닭고기 제품을 사육, 생산해 소비자에게

는 안전식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업계는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련의 신문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일부 부도덕한 해당 당사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사육농가마저 의혹의 대상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로부터 친환경 축산물이 외면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육계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이란 문자 그대로 항생제 사용 '제로'로 사육 전 과정에서 일체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가 없으면 더 이상 친환경 축산물 시장은 없으며 시장이 없다면 별도의 사육, 생산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친환경 닭고기 시장 확대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